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송 민 순 / 외교통상부 장관

제프리삭스 교수님,
신장범 KOICA총재님,
국내외 ODA분야 전문가 여러분,

그러나 아프리카 전역을 비롯하여 많은 개도국에 확산되고 있는 AIDS 감염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부사하라 이남 지역의 절대빈곤문제 해결도 별다른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I. MDGs 달성도 검토 필요성

저는 오늘 우리 정부가 UN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ODA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목표달성 연도 2015년에 대해 중간 반환점이 되는 금년이야말로 천년개발목표의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UN천년개발목표(MDG)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외원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절대빈곤층의 감소, 초등교육의 확산,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감소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개발기구가 천년개발목표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제프리삭스 교수와 함께 전반적인 천년개발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미진한 목표에 대한 이행을 촉진시키는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한국정부의 회의 주최 의의

또한 금번 회의를 한국 정부가 개최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945년 이후 국제원조를 받은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초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개도국 중에서 경제·사회발전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컸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발전경험이 국제사회의 천년개발목표 달성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제개발원조 문제와 한국의 국제적 기여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개발이니셔티브 발표와 한·아프리카 포럼, 그리고 금번 한국의 컨퍼런스 개최는 노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별한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역사적, 정책적 맥락을 조망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 정부가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국제개

발원조 정책의 기초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III. 한국정부의 국제개발원조 정책 방향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세계 11위의 경제국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나라의 지난 어려웠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원조를 양과 질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지난해 ODA 對 GNI 비율을 2009년에는 0.1%로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한국의 국제개발원조(ODA) 총액은 2009년 약 10억불, 2015년 약 32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아직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과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요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UN, World Bank, OECD 등 국제개발기구와 여타 공여국 및 수원국과 협력하여 원조전달체제의 효율화,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수원국의 Good Governance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정부는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상 원조 비율을 점차 낮추어 가고 있고, 국제적 수준의 대외원조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원조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ODA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조집행 중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 능력 강화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와 수원국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원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시 발표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과 수원국간 양자 협력과 함께 다자차원에서 UNDP와 2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천년개발목표 이행 실태와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권에 1달러씩 부과하는 『국제빈곤 퇴치기금제도』도입과 아울러『혁신적 개발재원』을 위한 리딩그룹의 의장국 총회 및 OECD Non-DAC 공여국 회의를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우리 정부의 천년개발 목표보고서를 발간하여 UN 등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토론이 다양한 시민사회계층으로부터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은 경험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체제 수립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역사를 가진 대표적

인 국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귀중한 경험을 개발경험의 전수라는 방식으로 개도국에 전파하여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특색 있게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IV. MDGs 이행을 위한 국제적 의지 결집의 필요

지난 50년간 국제사회는 약 2.3조불의 엄청난 금액의 국제개발원조자금(ODA)을 개도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개발원조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원국의 경제적 효율성 부족, 구조적 부패 외에도 가버넌스 분야의 실패, 즉 정부역량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프리삭스 교수도 강조한 것처럼, 일반적인 견해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는 최빈 개도국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발전의 사다리’에 첫발을 디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개발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원조 증액에 대한 각국 지

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국민들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그에 합당한 찬사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대외원조가 수원국내에서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수원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년개발목표는 단순히 부국의 빈곤에 대한 원조 약속이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천명한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국민적 희망, 지도자의 열정, 정선된 발전 목표와 실천 계획, 최소한의 재원이 마련된다면 ‘빈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도 동 논의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과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가 국제기구, 수원국, 공여국의 개발원조 관계자,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더 많은 발전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